

# 퇴계 평화사상에 관한 일고찰

김성실 (성균관대학교)

## 국문요약

본 논문은 퇴계의 평화사상을 고찰한 논문이다.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위기와 강대국들의 힘대힘의 논리 속에서 평화는 요원하였다. 역사 이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오히려 냉전시대 이후 전쟁과 무력의 위협이 증가되었다. 어쩌면 우리는 평화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내린다면 냉전시대는 과연 평화의 시대였을까 반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평화를 국가 대 국가 간의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범위를 축소해 본다면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타자에 대한 무관심이나 개인이기주의는 결코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확장해서 본다면 싸움을 하지 않는 개인과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가 평화로운 상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퇴계는 평화가 남과 남과의 투쟁과 전쟁이 아닌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감'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나'와 다른 '너'가 아닌 '우리'를 강조하였다. 퇴계는 사회의 시대를 묵묵히 걸어간 철학자이다. 그의 시대 역시 오늘날 못지않게 복잡다난했던 시대였지만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과 그런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었던 퇴계의 평화사상이 오늘날 시대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퇴계의 천(天)과 인(人), 리기(理氣) 등의 개념과 상소문, 『성학십도』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퇴계(退溪), 평화(平和), 천(天), 공생(共生),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

## I. 들어가는 말

평화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평화를 외치는 자는 역설적이다. 역사를 통해 보아도 평화를 외치던 자들이 전쟁준비에 가장 열을 올린 사람들이 많았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평화를 외치려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up>1)</sup>는 자극적 문구가 굳이 아니더라도 현실의 정치세계 속에는 힘이 곧 평화인 시대가 되어버렸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외교 각축장에서 겉으로는 대화와 평화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힘 대 힘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sup>2)</sup> 왜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평화의 개념과 실제 현실외교정치에서 적용되는 평화의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에야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평화(平和)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집단(종족 · 씨족 · 국가 · 국가군) 상호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sup>3)</sup>를 일컫는다. 물론 광의의 의미에서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화’란 전쟁의 반대말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전쟁이 없기만 하면 평화일까? 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대전과 6.25, 베트남전쟁 등 전면전으로 치달은 시대보다 냉전 종식 이후 크고 작은 국지전과 테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크다고 한다. 냉전시대 이후 오히려 더 많

1) 베게티우스(Publius Flavius Vegetius Renatus) : “Si vis pacem para bellum”

2) 본고를 썼던 지난 시간 이후 최근에 급격히 진전된 남북대화 무드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목도하면서 평화는 전쟁이 아닌 대화로써 출발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었다.

3)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은 국지전, 테러 등이 일어난 셈이다. 탈냉전의 시대라면 마땅히 평화가 와야 할 텐데도 왜 냉전보다 더 갈등과 긴장이 높아진 것일까?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세상이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며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지 않는 상태가 평화라고 여긴다면, 타자에 대한 무관심, 개인이기주의 같이 싸우지는 않고 피해도 남에게 피해도 입히지도 않는 형태 역시도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타자에 대한 무관심이나 개인이기주의를 평화로운 상태라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보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화와 소통, 협력, 이해, 믿음, 신뢰를 쌓아가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세계로 확대해서 본다면 진정으로 ‘평화’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개인의 마음의 조화로운 상태와 전 세계의 평화로운 상태는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위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적 해법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이루는 사상적 토대에 대한 검토와 이해 역시 그러한 해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세계는 개인이 모여 이루는 것이자 개인의 위상과 가치 역시 하나의 세계와 같은 것이기에 개인에 있어서의 마음과 몸의 평화로운 상태는 나와 너의 평화로운 만남을 이루고 그것이 사회, 국가,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 수기(修己)면 치인(治人)이라는 것 역시도 수기(修己) 이후에 치인(治人)이라는 단계나 과정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 수기치인(修己治人)이 함께 있는 것처럼 평화 역시 개인에게서 세계로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다.

퇴계는 사화(士禍)의 시대를 살았다. 무고한 선비들이 바른 말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탄압받던 시대의 한 가운데 퇴계는 살았던 것이다. 그의 생애 속에서 관직으로 나아가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 것보다 오히려 병을 핑계로 사직소(辭職疏)를 냈던 것이 더 많을 정도로 암울한 시대의 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퇴계가 느끼고 이해했던 올바름이 오늘날 평화를 논하는 현대사회의 역학관계 속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몸마음의 수양에서 성군이 되기를 희망하며 올린 성학십도에 이르기까지 퇴계 사상은 평화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퇴계 평화사상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김병욱의 「퇴계 평화개념에 관한 검토」, 성해준의 「퇴계(退溪)의 인애관(仁愛觀)에 담긴 평화사상(平和思想)」, 「退溪의 對日觀에 含意된 平和思想」, 「퇴계의 화친유화의 대일관에 보이는 평화」 등이 있으나 대부분 퇴계의 상소문에 보인 대일관에 대한 분석 등 정치학 측면에서 검토한 경우가 많으며 평화사상의 토대로서 퇴계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퇴계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天)과 인(人)의 관계와 리기론(理氣論) 등을 중심으로 평화사상의 토대를 분석하고 왜구와의 교역중단과 재개문제를 다룬 상소문과 『성학십도(聖學十圖)』등을 중심으로 평화사상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퇴계의 평화사상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 II. 퇴계 평화사상의 토대

퇴계는 일찍이 동방의 주자(朱子)라고 불릴 정도로 주자학을 계승하였

고, 퇴계 스스로도 주자를 존경하였음을 여러 문헌에서 알 수 있다. 주자학은 성(性)이 곧 이치(理)임을 말하는 성리학(性理學)이다. 조선시대 들어온 유학은 성리학, 곧 주자학이지만 한국전통 사상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령 주자 당시의 송대(宋代) 유학의 특징은 우주론을 중심으로 한 세계와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해에 천착하였다면, 조선시대 유학은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과 그러한 인간과 인간이 부대껴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인간 마음 깊은 내면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다.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는 인간에 대한 심성론적(心性論的) 이해에 대한 초점을 맞춘 한국철학사상의 특색이 되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퇴계는 하늘과 사람(天人), 사람 마음의 이치(理, 情)에 관한 심도있는 이해를 전개하였다.

## 1. 천인(天人) ; 하늘적 가치의 인간

퇴계에게 있어 천(天)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주자학적 전통 속에서 하늘은 ‘태극(太極)’, ‘완전함’, ‘이치의 극치’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거기에 더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 퇴계는 “천지의 태극이 인간에서는 성이요, 천지의 동정·음양이 인간에서는 심이요, 천지의 오행이 인간에서는 오상이요, 천지가 화생하는 만물은 인간에서 만사이다”<sup>4)</sup>라고 하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우주만물의 이법(理法)적 천(天)으로 여기는 성리학의 천(天) 개념에 반드시 인간을 항상 함께 놓고 그 가치를 논하는 것이다. 또 하늘과 인간의 합일(合一)을 말

4) 『退溪先生文集』卷22, 「書」, 〈答李剛而〉, “天地之太極, 在人便是性, 天地之動靜陰陽, 在人便是心, 天地之金木水火土, 在人便是仁義禮智信, 天地之化生萬物, 在人便是萬事”.

(이하 한국문집은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참조.

하는 중국철학과 달리 한국은 목은 이색(牧隱 李穡)을 필두로 하늘과 인간 사이에 간극이 없다는 천인무간(天人無間)의 전통 역시 퇴계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없으며 서로 어긋남이 없이 감응한다. 그러므로 이륜(彝倫)이 베풀어지고 정치와 교육이 밝아지면, 해와 달이 궤도를 따라 순행하고 바람과 비가 제때에 맞으며, 경성(景星)과 경운(慶雲)과 예초(醴泉)과 주초(朱草) 등의 상서로운 조짐이 이르게 마련이다.<sup>5)</sup>

목은 이색은 “하늘이 곧 이치이므로 사람의 일(人事)이 하늘 아님이 없고, 인간을 비롯한 우주만물에 성(性)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이 성(性)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 천(天)을 동일하게 가지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sup>6)</sup>고 보았다.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을 천명한 것이다. 양촌 권근 역시 「천인심성합일지도」를 통해 하늘과 인간, 그리고 하늘이 명한 성을 품부한 인간의 마음에 관한 이치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인간심성에 관한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하늘과 인간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담고 있는 조선유학의 특징은 성리학 우주론의 대표적 개념인 태극(太極)에 대한 이해에서도 잘 나타난다.

송대 신유학은 북송오자(北宋五子)라 불리는 주돈이, 장횡거, 정호, 정이, 소강절 이 다섯명의 사상을 주자가 종합·집대성한 것인데, 특히 주돈이의 「태극도」는 송대 신유학의 우주론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성리학 해설서라 할 수 있는 『근사록』에서 「태극도설」

5) 『牧隱文藁』卷1, 「記」, 〈西京風月樓記〉, “天人無間, 感應不惑. 故彝倫敍而政教明, 則日月順軌, 風雨以時, 而景星慶雲醴泉朱草之瑞至焉”.

6) 『牧隱文藁』卷10, 「說」, 〈直說三篇〉, “天則理也, 然後人始知人事之無非天矣. 夫性也在人物, 指人物而名之曰人也物也, 是跡也. 求其所以然而辯之, 則在人者性也, 在物者亦性也. 同一性也, 則同一天也”.

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며, 태극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만물 화생의 원리를 밝히려는 것이 주자학의 시작이었다. 퇴계 역시 그러한 전통 위에서 태극의 중요성을 알고 『성학십도』 첫 번째 도(圖)로 배치하지만 최초에는 「천명도」라는 그림을 통해 태극도의 5단계의 동그라미 그림을 하나의 동그라미로써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태극이 우주의 조화질서를 내포하는 ‘천리’의 차원이라면, ‘천명’은 인간과 사물이 부여받는 성품을 수양하는 인도의 차원”<sup>7)</sup>으로 본 것이다. 태극(太極)이 인간과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라고 보고 그 과정을 5단계의 원 형태로 그 내용을 전개하는 태극도와 달리 하나의 원의 형태로 그린 「천명도」는 사람이 하늘이 명한 바를 알고 깨닫는 인식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퇴계는 태극(太極)과 천명(天命)의 관계가 하늘과 인간이 서로 상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도식은 사람과 물건의 타고난 것으로 인하고 이와 기의 화생(化生)을 근원하였으니, 합하여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그 위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 문입니다. 이는 모두 부득이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의 위치에서 본다면 이른바 ‘하나를 나누어 다섯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완전히 다 갖추어져 있으니, 그 뜻은 이미 염계의 도설에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태극도설을 기반으로 그려 놓은 것에 불과할 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sup>8)</sup>

퇴계는 「태극도설」을 기반으로 「천명도」를 수정하면서도 본래의 뜻을 해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태극도설」 내용 전반을 포함하되, ‘사람과 물건의 타고난 것으로 인하고 이와 기의 화생에 근원’하여 수정하였

7) 금장태,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80.

8) 『退溪先生文集』 卷41, 「雜著」, 〈天命圖說後叙〉 “是圖, 因人物之稟賦, 原理氣之化生, 不合爲一, 不成位置, 皆不得已而爲之者也. 而況就人位而觀之, 所謂分一爲五者, 宛然畢具, 其義已備於濂溪圖說, 此不過卽圖說而畫出之耳, 非有異也”.

다. 사람의 위치에서 하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은 측은한 마음을 비롯한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따라가 보면 인간본연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또 하늘적 가치를 지닌 우리 인간은 천명(天命)에 따라 하늘의 성품을 품부받는데 그것을 성(性)이라 하고 그 성이 곧 이치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선한 성품 그대로를 품부받았기에 악한 성품이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면 평화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평화일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주자는 인간 본성이 이치인데 현실 세계 속에서 그렇지 못한 까닭을 하늘의 이치를 품부함에 있어 기질(氣質)의 청탁수박(淸濁粹駁)에 따라 편벽되고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본성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사람은 본래 최령(最靈)한 존재로 온전히 빼어난 기질을 품부해야 하지만 청탁수박에 따라 편벽되고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악한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주렴계가 『태극도설』에서 “오성이 감하고 동하여 선악이 나누어진다(五性感動而善惡分)”에 대한 내용에 대해 주자는 “오성(五性)이 느껴 움직인다는 것은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물, 불, 나무, 쇠, 흙의 성질이 생겨난다는 것이며, 선과 악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마치 남성의 요소와 여성의 요소가 이루어지는 현상과 같은 것이고, 인간 만사가 생겨나고 변화하는 것은 만물이 생겨나고 변화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기본적으로 주자의 입장을 계승하지만 선악(善惡)의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풀어내고 있다.

손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천명(天命)에서부터 심(心)·성(性)·정(情)·



의(意)에 대한 선(善)·악(惡)의 구분과 또 사단·칠정의 발(發)함이 자사(子思)와 주자(周子)에 부합한다는 것에 대한 그 대략을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하여, 대답하기를, “천명의 원(圓)은 곧 주자(周子)가 이른바 ‘무극의 진(眞)과 음양·오행의 정기(精氣)가 묘하게 합하여 응결한다.’는 것인데, 자사는 이(理)와 기(氣)가 묘하게 합한 가운데서 홀로 무극의 이(理)만 가리켜 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이것을 성(性)이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사람과 물건을 갈라 놓고 ‘물건마다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자(周子)의 도설(圖說)에 근본한 것으로 자사의 이른바 성(性)이란 것이고, 심(心)·성(性)의 원은 곧 주자(周子)가 말한 ‘오직 사람만이 그 빼어난 것을 얻어 가장 영특하다.’는 것이며, 그 영특한 것은 심(心)으로서 성(性)이 그 가운데 갖추어져 있으니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다섯 가지가 바로 이것이며, 빼어나다는 것은 기(氣)와 질(質)입니다. 오른쪽의 질(質)은 음(陰)이 하는 것이니, 곧 이른바 ‘형체가 이미 생겼다.’는 것이고, 왼쪽의 기(氣)는 양(陽)이 하는 것이니, 곧 이른바 ‘신(神)이 지(知)를 발한다.’는 것입니다. ‘성이 발하여 정(情)이 되고 심이 발하여 의(意)가 된다.’는 것은 곧 오성(五性)이 감동함을 이르는 것이고, 선기(善幾)와 악기(惡幾)는 ‘선과 악이 나누어진다.’는 것이고,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온갖 일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sup>9)</sup>

퇴계는 ‘성발위정(性發爲情), 심발위의(心發爲意)’의 개념을 통해 인간 본성의 감(感)하고 동(動)하게 되면 정(情)과 의(意)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온갖 일이 나오는 정(情)은 성(性)의 발하는 것이므로 본래 선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악이라고 여긴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통괄한 심

9) 『退溪先生文集』 卷41, 「雜著」, 〈天命圖說後叙〉, “曰然則自天命而下, 心性情意善惡之分與夫四端七情之發合於子思周子者, 可得聞其略歟. 曰天命之圈, 卽周子所謂無極二五妙合而凝者也, 而子思則就理氣妙合之中, 獨指無極之理而言. 故直以是爲性焉耳. 分人分物, 物物各具一太極者, 本周子圖說之意, 而子思之所謂性也. 心性之圈, 卽周子所謂惟人也得其秀而最靈者也, 靈者, 心也, 而性具其中, 仁義禮智信五者是也, 秀者, 氣與質也, 右質, 陰之爲, 卽所謂形既生矣者也, 左氣, 陽之爲, 卽所謂神發知矣者也, 性發爲情, 心發爲意, 卽五性感動之謂也, 善幾惡幾, 善惡分者也, 四端七情, 萬事出焉者也, 由是言之”.

(心)이 발하면 의(意)가 되기에 성(性)과 정(情), 심(心)과 의(意)의 관계 속에서 선(善)과 악(惡)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 것이다. 퇴계는 “의(意)가 심(心)의 발함이 되고, 또 정(情)을 끼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혹은 천리의 공(公)을 따르기도 하고, 혹은 인욕의 사(私)를 따르기도 하여 선과 악의 구분이 이로 말미암아 결정 나니, 이것이 이른바 의의 선기(善幾)와 악기(惡幾)라는 것”<sup>10)</sup>이라고 보고 정(情)의 발함에 선과 악의 다름이 있는 것에 대한 단서보다는 의(意)의 발함에 마음을 좌지우지 하여 선악의 구분을 일으킨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 퇴계에게 있어 사람은 기질(氣質)의 빼어난 것을 품부한 존재로 청탁수박(淸濁粹駁)이 있을 뿐 기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온갖 일이 벌어지는 감정에는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구분해서 보라는 것이 아닌, 온갖 일이 나오는 감정이 결국 인간 마음의 사유 속에서 의지를 형성하기에 그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결국 선악의 이해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즉 퇴계에 있어 선과 악의 문제는 존재론이 아닌 가치론으로서 선천적으로 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선한 성품을 품부받은 하늘적 가치의 인간에게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유(思惟)의 부재(不在)와 착각(錯覺)을 의미한다.<sup>11)</sup> 퇴계는 이것을 리기(理氣)

10) 『退溪先生續集』卷8, 「雜著」, 〈天命圖說〉, “故其情之發, 不能無善惡之殊, 而其端甚微, 於是意爲心發, 而又挾其情而左右之. 或循天理之公, 或循人欲之私, 善惡之分, 由茲而決焉. 此所謂意幾善惡者也”.

11) 퇴계의 사칠논변(四七論辯)의 핵심은 감정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유, 착각을 경계하고 올바른 앎으로서 바로잡을 것을 말하고 있다.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에 대해 리(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르는 것(理發氣隨)은 사단, 기(氣)가 발하여 리(理)가 타는 것(氣發理乘)은 칠정이라는 퇴계의 사칠이해는 기존의 호발론(互發論)으로 리도 발하고 기도 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사단은 선한 감정, 칠정은 선악이 뒤섞여 있는 감정으로 이해되지만, 칠정이라고 하면서 나쁜 감정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그렇

의 문제로 풀면서 본성(本性)과 감정(感情)의 문제로 넘어온다.<sup>12)</sup> 선한 본성에서 발휘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악(惡)하게 될 수 있느냐는 문제로 풀어나간 것이다. 맹자(孟子)는 4가지 선한 감정의 실마리(四端)를 따라 그 근원을 찾아보면 인간 본성의 선함을 알 수 있다고 보았는데 퇴계 역시 그렇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인간 본성과 감정을 통솔하는 마음을 어떻게 같고 닮을 것인가에 대한 인간 내면의 수양(修養)문제로까지 연결되었다.

퇴계는 “태극에 동정이 있는 것은 태극 스스로가 동정하는 것이요, 천명이 유행하는 것은 천명 스스로가 유행하는 것이니 어찌 다시 시키는 자가 있겠느냐”<sup>13)</sup>고 하며 태극(太極)과 천명(天命)의 유행이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태극은 리(理)이

---

지 않다고 여기는 사유에 대해 분별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올바른 생각과 배움에 대해서는 이미 공맹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공자는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라고 하였고, 맹자는 “생각하면 얻고 그렇지 않으면 잃는다(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고 하여 사유의 부재, 착각,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12) 퇴계는 고봉과의 사칠논변을 통해 인간 감정에 대한 이해를 리기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시도가 자신이 최초임을 밝힌다. “성정(性情)에 대한 변론은 선유(先儒)들이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사단·칠정을 말한 데서는 모두 그것을 정(情)이라고 하고 이(理)·기(氣)로 나누어 말한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정생(鄭生 정지운(鄭之雲))이 천명도(天命圖)를 만들면서 사단은 이(理)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氣)에서 발한다는 설(說)이 있었는데, 나의 뜻에도 역시 그 분별이 너무 심하여 혹 분쟁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선(純善)·겸기(兼氣)’ 등의 말로 고쳤습니다.”(『退溪先生文集』卷16, 「書」, 〈答奇明彦〉, 〈論四端七情第二書〉, “性情之辯, 先儒發明詳矣. 惟四端七情之云, 但俱謂之情, 而未見有以理氣分說者焉, 往年鄭生之作圖也, 有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之說, 愚意亦恐其分別太甚, 或致爭端, 故改下純善兼氣等語”.)
- 13) 『退溪先生文集』卷13, 「書」, 〈答李達李天機〉, “太極之有動靜, 太極自動靜也, 天命之流行, 天命之自流行也, 豈復有使之者歟”.

기에 움직이는 것이 기이며 동정과 유행은 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태극 그 자체가 동정하고 유행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느냐는 기존의 이해를 넘어 리(理)의 능동성을 말하는 것이었다. 리가 단순히 이치, 이법으로서 기에 부속되어 올라타는 리승(理乘)의 리가 아닌 리발(理發)의 리이며, 이를 인간의 성품 즉 ‘성이 곧 이치[性卽理]’라는 주자학적 사유 속에서 인간 존재의 가치가 그 누구의 강요나 타율에 의해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퇴계의 천(天)은 인간과 분리된 이법적(理法的) 천(天)만이 아닌 나와 함께 하는 천(天)이자 상생하는 천(天)이며 능동하고 자발적인 천(天)이다. 그러한 천(天)은 명(命)함으로서 인간에게 품부되어 모든 사람이 그 천(天)을 품부한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이해가 바로 서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때리거나 죽이는 행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하늘적 가치를 지닌 ‘나’와 같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너’를 마주대하게 됨으로서 그것이 사회, 국가, 공동체로 확산되어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 2. 주리(主理) ; 차별없는 세상

‘리(理)’라는 것은 본래 옥에 있는 무늬, 물결을 따라 다듬는 것을 그 어원으로 하여 ‘다스리다’, ‘다스려지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치’, ‘이법’ 등의 의미로 통용된다. ‘리’라는 개념은 주역 등 경서에서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어 오다가 송대 신유학적 체계 속에서 ‘성이 곧 이치(性卽理)’라는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하늘로부터 품부 받은 인간의 본성은 곧 이치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유학적 체계 속에서 ‘리’는 곧 세상 만사의 이치이자 인간 도리의 법칙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자는 태극과 이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틀림없이 이치뿐이었다. 이치가 있기 때문에 곧 천지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치가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천지도 없었을 것이고 사람이나 외물도 없었을 것이니, 아무것도 심지 못했을 것이다. 이치가 있으면 곧 기운이 유행하여 만물을 기른다.<sup>14)</sup>

태극은 단지 천지 만물의 이치일 뿐이다. 천지에 대하여 말하면 천지 속에 태극이 있고, 만물에 대하여 말하면 만물 속에 각각 태극이 있다.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틀림없이 이치가 먼저 있었다. ‘움직여서 양의 기운을 낳는 것’도 역시 이치일 뿐이고, ‘멈추어서 음의 기운을 낳는 것’도 역시 이치일 뿐이다.<sup>15)</sup>

퇴계 역시도 주자학적 전통 위에서 리(理)를 이해한다.

“주자의 말에 ‘모든 사물이 마땅히 그러하여 그만둘 수 없고, 본래 그러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이 이치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라는 말은, 곧 임금은 마땅히 어질어야 하고 자식은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는 따위가 그것이요, ‘본래 그러한 것’이라는 것은, 곧 어진 까닭이나 효도하는 까닭을 말하는 것이다”하였다.<sup>16)</sup>

하늘은 즉 리(理)이다. 그런데 그 덕이 네 가지가 있으니, 원(元)·형(亨)·리(利)·정(貞)이다. 대개 원이란 것은 시작의 이치요, 형은 행통의 이치이며, 리는 수행의 이치요, 정은 성공의 이치다. 그것이 순환하여 쉬지 않음이 모두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묘함이, 이른바 성(誠)이라 한다. 그러므로 음양과

14) 『朱子語類』卷1, “未有天地之先, 畢竟也只是理. 有此理, 便有此天地. 若無此理, 便亦無天地, 無人無物, 都無該載了. 有理, 便有氣流行,

15) 『朱子語類』卷1, “太極只是天地萬物之理. 在天地言, 則天地中有太極, 在萬物言, 則萬物中各有太極. 未有天地之先, 畢竟是先有此理. 動而生陽, 亦只是理, 靜而生陰, 亦只是理”.

16) 『退溪先生言行錄』卷4, 「類編」, 《論理氣》“朱子曰, 凡事物之當然而不容已, 所以然而不可易者, 是理, 蓋所當然, 卽君當仁, 子當孝之類, 所以然, 卽所以仁, 所以堦者, 便是”.

오행이 유행할 때 이 네 가지가 항상 그중에 있어서 만물을 명하는 근원이 되었다.<sup>17)</sup>

하지만 ‘리(理)’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기(氣)의 세계, 현상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기(理氣)의 조화로서 설명한다. 다만 리(理)와 기(氣) 중 어떤 것을 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보았다.

내 생각에, 천지의 성은 오로지 리만을 가리켰다 하니 여기에는 리만 있고 기는 없는 것입니까? 천하에 기가 없는 이가 없으니, 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만을 가리켜서 말할 수 있다면 기질의 성이 비록 이·기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어찌 기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는 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이에 나아가 말한 것이고, 하나는 기가 주가 되기 때문에 기에 나아가서 말한 것뿐입니다. 사단에 기가 없는 것은 아닌데도, ‘리의 발’이라고만 하고, 칠정에 이가 없는 것은 아닌데도 ‘기의 발’이라고만 하는 것도 이런 뜻에서입니다.<sup>18)</sup>

퇴계사상의 주리(主理)적 특성은 단순히 리(理)만 귀하게 여기고 기(氣)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리기의 조화(調和)와 묘응(妙應)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리기의 이분법적 주장과는 다르다. 누구보다도 ‘리’의 소중한 가치를 알기에 그런 ‘리’로부터 나온

17) 『退溪先生續集』卷8, 「雜著」, 〈天命圖說〉, “天卽理也。而其德有四, 曰元亨利貞是也。(四者之實曰誠) 蓋元者, 始之理, 亨者, 通之理, 利者, 遂之理, 貞者, 成之理, 而其所以循環不息者, 莫非真實無妄之妙, 乃所謂誠也。故當二五流行之際, 此四者常寓於其中, 而爲命物之源”。

18) 『退溪先生文集』卷16, 「書」, 〈答奇明彦〉, 〈論四端七情第二書〉, “混謂天地之性, 固專指理, 不知此際只有理, 還無氣乎。天下未有無氣之理, 則非只有理。然猶可以專指理言, 則氣質之性, 雖雜理氣, 寧不可指氣而言之乎。一則理爲主, 故就理言。一則氣爲主, 故就氣言耳。四端非無氣, 而但云理之發, 七情非無理, 而但云氣之發, 其義亦猶是也”。

‘기’ 역시도 ‘리’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리’를 주로해서 말하는 까닭은 천리(天理)에서 성리(性理)로 하늘에서 인간으로 품부되는 이치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또 퇴계는 기질(氣質)의 다름에 대한 제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면서 기(氣)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사람이 태어날 때 다 같이 일원지기(一元之氣)를 받았다고 하나, 그 일원지기라는 것 또한 그 자체가 같지 않은 것이다. 그 일원에서 음과 양이 나누어지니, 그 기는 본래 청탁(淸濁)의 구분이 있었던 것이고, 음과 양이 다시 오행으로 나누어지니 그 기가 생하기도 하고 극(克)하기도 하며, 순옹하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하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며, 혹은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며,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며, 왕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해서, 어지럽게 서로 부딪치면서 뒤집어지고 뒤섞여지며, 진하기도 뭉기도 맑기도 탁하기도 하여 만 가지로 서로 같지 않은 것이다. 사람이 이러한 기를 받아 태어났으니 그 기질이 같지 않다는 것이 이상할 게 무엇인가. 옛날 선비들이 이른바 ‘숫아오르고 가라앉고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음양오행이 같지 않음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다.<sup>19)</sup>

퇴계에게 있어 하늘적 가치를 품부한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하지만 일률적으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청탁수박의 기질의 특성에 따라 품부한대로 그 나름의 개성을 지니고 있기에 각기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하늘로 품부받은 리(理)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하늘의 도는 지극히 공정하지

19) 『退溪先生言行錄』卷4, 「類編」, 〈論理氣〉, “先生曰, 人之生也, 雖曰同稟一元之氣, 而一元之氣, 亦自不齊. 蓋自一元而分為陰陽, 則其氣固有淸濁之分, 陰陽又分為五行, 則其為氣也. 或生或克, 或順或逆, 或升或降, 或往或復, 或來或去, 或闢, 或闔或旺或衰, 紛綸交盪顛倒錯綜, 淳漓淸濁有萬不齊人稟是氣而生, 則其氣質之不同. 何足怪乎. 先儒所謂, 騰倒到今日者, 正指二五不齊處, 言也”.

만 그 기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순수하고 박잡함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사사로운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sup>20)</sup> 또 기질이라고 할 때 ‘질’의 뜻에 대해 묻자 퇴계가 말하기를 “질(質)자의 뜻은 나 역시 깨닫기 어렵지만 이것은 형질(形質)을 말한 것으로 주자가 말한 ‘어떤 모양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뜻뿐이라면 사람들 중에는 체질과 생김새는 매우 아름다우나 심성은 악한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못생겼지만 성품이나 행실은 아름다운 자도 있으니, 형질만으로 이 글자의 뜻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sup>21)</sup>고 하면서 주자가 이해하는 질의 개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퇴계는 아름답거나 악한 것은 형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것은 리기지합(理氣之合)의 인간 존재의 가치에 기의 다름으로 그 가치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의 성(性)과 성즉리(性卽理)의 리(理)가 만난 성리(性理)의 담지자인 우리의 주리(主理)적 특성을 강조한 퇴계의 의도가 잘 드러난 것이다. 다름을 차별로 보지 않고 다름을 강조함으로써 동일한 가치를 잃지 않고자 한 퇴계의 인간이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늘과 인간, 리기의 이해방식의 지평 속에 퇴계는 자신만의 평화사상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퇴계의 사상이 ‘평화(平和)’라는 주제를 놓고 실제의 외교무대에서 현실정치 속에서 혹은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 『退溪先生文集』卷38, 「書」, “天道至公, 而賦予純駁之不一, 非有私意於其間”.

21) 『退溪先生文集』卷39, 「書」, 〈答李公浩〉, “質字之義, 混亦難曉. 嘗思之, 固是以形質言, 如朱子所謂成這模樣子底也. 然若止此而已, 則人有體質形貌甚美而心性惡者, 如韓子所謂平脅曼膚. 顏如渥丹美而狠者, 又有體貌寢陋如瞶明, 澹臺滅明之倫而性行美者, 則不可以形質而斷此字之義, 明矣”.



### Ⅲ. 퇴계 평화사상의 내용

#### 1. 공생(共生)

퇴계는 갑진(甲辰)년(1554년, 중종39년)에 올린 상소를 통해 이웃나라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어떻게 외교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 이황은 진실로 황공하옵게 삼가 주상 전하께 아뢰입니다. 신은 삼가 생각 건대, 사람들이 보통 모두들 “이적은 짐승”이라고 합시다만 저 이적 역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짐승에 비교하는 것은 일부러 심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의를 알지 못해서 군신과 상하의 분별이 없고, 그들의 생활이 무지하고 미련하며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거의 짐승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들을 짐승과 같은 종류로 병칭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짐승으로 기른다면 짐승들은 그 본성대로 살고, 이적을 이적으로 대하면 이적들은 자신의 분수에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자는 이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춘추』에 이적에 대해 기록하기를 “오는 자는 막지 않고, 가는 자는 붙잡지 않는다.” 하였으니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일 군신 상하의 분별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의와 명교의 도로써 책망하며, 반드시 그들과 시비를 가리고 곡직을 다투며 역과 순을 밝힌 뒤에야 마음이 풀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짐승에게 예의를 행하는 일로 독려하는 것이니, 그 마음을 길들이자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본성만 거슬릴 뿐이어서 치거나 물어뜯거나 할 것입니다. 옛날 묘족이 반역할 적에 우가 정벌했는데도 오히려 굴복하지 않았으니, 그 완악함이 또한 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순이 간우의 춤을 추자 곧 와서 행복하니, 순이 곧 받아들였고 구악을 기억하고 그들을 거절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주나라 때에는 험윤이 국내에 침입하여 기내에까지 가까이 쳐들어왔으니 그 반역이 대단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에게 명하여 가볍게 쳐서 국경 밖으로 몰아냈을 뿐, 역(逆)과 순(順)을 가려서 영원히 절교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sup>22)</sup>

퇴계는 당시 왜구라고 여긴 일본을 금수, 이적과 같이 보는 당시 견해에 대해 비록 금수, 이적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사람이라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또한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예의와 분별을 알지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우월의식 속에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입장(분수)에 맞는 대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퇴계는 의리(義理)명분(名分)의 역사를 다룬 『춘추(春秋)』의 사례를 들며 이적(夷狄)이 침입했을 때 국경 밖으로 몰아낼 뿐 영원히 절교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이는 평화의 기반이 힘이 아닌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힘으로서 상대를 굴복시키면 당장은 굴복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믿음과 신뢰로서 굴복시킨다면 그것은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는 ‘나는 살고 너는 죽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생(共生)의 기반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지난번 섬나라 오랑캐의 사량(蛇梁)의 변은 개나 쥐새끼들의 도적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미 도적의 무리를 죽여 물리쳤고, 또 왜관(倭館)에 머물던 자들까지 모조리 쫓아 버렸으니, 국위는 이미 떨쳤고 왕법(王法)도 바로잡혔습니다. 저들도 위엄을 두려워하고 은덕에 부끄러워하며, 마음을 바꾸고 허물을 고쳐서 다른 왜인(왜人)들을 핑계 대고 대국(大國)에 호소하며 스스로 해명하여 머리를 숙여 애걸해 오고 꼬리를 흔들며 불쌍히 여겨 줄 것을 청해

22) 『退溪先生文集』卷6, 「疏」, 〈甲辰乞勿絕倭使疏〉, “臣伏以. 人有恆言, 皆曰夷狄禽獸, 夫夷狄亦人耳. 乃比於禽獸者, 非固甚言之也, 爲其不知禮義, 無君臣上下之分, 而其爲生也蚩蚩蠢蠢, 冥頑不靈, 殆與禽獸無異, 故取類而並稱之爾. 故以禽獸畜禽獸, 則物得其性, 以夷狄待夷狄, 則夷安其分. 故王者不治夷狄. 春秋錄戎, 來者不拒, 去者不追, 治之以不治者, 乃所以深治之也. 若乃執君臣上下之分, 而責禮義名教之道, 必欲與之辨是非, 爭曲直, 正逆順, 而後爲快, 則是所謂督禽獸以行禮樂之事, 求以擾其心, 適以逆其性, 不搏則噬矣. 苗民叛悖, 大禹征之而猶不服, 頑亦甚矣. 至其舞干羽而來格則受之, 未聞念舊惡而猶拒之也. 玁狁內侵, 逼近京邑, 逆已大矣. 及其命將薄伐, 逐出境而已. 未聞較逆順而永絕之也”.

왔습니다. 왕도(王道)는 넓고 넓어 속일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으며, 불신(不信)할 것이라고 미리 억측(億測)하지 않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것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지금 왜노(倭奴)가 청하는 것은 허락할 만 한데도 허락하지 않으시니, 어느 때에 허락해 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sup>23)</sup>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은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이다. 퇴계는 당시 왜구침탈로 피해를진 연안내륙 일대를 토벌하고 그 뒤에 다시금 화친을 요청하는 왜구에게 비록 분노와 불신이가득하지만 선불리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닌 왕도(王道)의 자세로 너그럽게 받아들일 것을 임금께 호소하였다.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었다.<sup>24)</sup>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자는 것이었다.<sup>25)</sup> 강대강의 힘으로써 굴복시키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갈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 그것이 퇴계가 말하는 평화인 것이다.

23) 『退溪先生文集』 卷6, 「疏」, 〈甲辰乞勿絕倭使疏〉, “往者, 島夷蛇梁之變, 不過狗鼠之偷耳. 旣殺賊徒而卻之, 又掃留館而逐之, 國威旣震, 王法亦正. 彼乃怛威悛德, 革心改過, 指他倭而爲辭, 控大邦而自解, 俛首而祈哀, 搖尾而乞憐, 王道蕩蕩, 不逆詐, 不億不信. 苟以是心至, 斯受之而已, 則今之倭奴之請. 若在可許而猶不許, 然則未知何時而可許乎”.

24) 퇴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치학계에서는 화친론이라 규정짓고 유화책을 펼친다고 본다.(김병욱, “퇴계 평화개념에 관한 검토,” 『국제정치논총』, 43권 3호(2003); 성해준, “퇴계의 화친유화의 대일관에 보이는 평화,”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2016)) 물론 화친론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지만 퇴계가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정치외교적 수단으로서 화친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보편성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25)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시대로 접어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드론과 같은 기기는 인간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이끌 기계로 각광받지만 이것이 ‘전쟁정신’에 의해 전쟁무기로 둔갑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마주대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에 따라 소비될 뿐이다. 퇴계가 말하는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과 인간으로서 대하는 태도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강대국들이 외치는 평화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끔 한다. 평화를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기준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재단하려는 태도가 아닌 진정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 2.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

우리가 평화를 말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이 혹은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평화는 그러한 대립과 갈등을 단순히 없는 상태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맹자(孟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의 실마리를 따라가보면 인간의 본성이 선함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선한 마음을 확장하여 천하에 이르면 사해(四海)를 보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사람이 네 가지 단서(四端)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사지(四肢)가 있는 것과 같다. 이 사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의(仁義)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며, 또 자기 임금더러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무릇 나에게 있는 이 사단을 모두 미루어 넓혀 채울 줄 안다면,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물이 처음 솟아 오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일 채울 수 있다면 온 천하를 편안하게 하기에 충분하고,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제 부모조차도 섬기지 못할 것이다.<sup>26)</sup>

26) 『孟子』「公孫丑上」6,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 自賊者也, 謂其君不能者, 賊其君者也.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또 “내 아버지를 모시는 마음을 미루어 남의 아버지에게까지 미치고, 나의 어린애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남의 어린애에게까지 미치면, 천하(天下)를 손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sup>27)</sup>이라고 하여 사단을 미루어 확충하는 것과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사해로 확장하는 것, 이것이 맹자에게 있어서 평화의 논리였다.

퇴계 역시 『성학십도(聖學十圖)』 제2도 「서명도(西銘圖)」에서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고 있다.

건(乾)을 아버지라 일컬고, 곤(坤)을 어머니라 일컬으니, 나는 여기에 미소한 존재로 그 가운데 섞여 있다. 그러므로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나의 몸이 되었고 천지를 이끄는 것은 나의 성(性)이 되었다. 백성은 나의 동포요, 만물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며, 대군(大君)은 내 부모의 종자(宗子)요, 대신(大臣)은 종자의 가상(家相)이다. 나이 많은 이를 높이는 것은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는 것이요, 외롭고 약한 이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하는 것이다. 성인은 천지와 덕을 합한 자요, 현인은 빼어난 자이며, 무릇 천하의 병들고 잔약한 사람들과 아비 없는 자식, 자식 없는 아비, 그리고 홀아비와 과부들은 모두 나의 형제 가운데 심한 환난을 당하여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이다. 이것을 보존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공경함이요, 즐거워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은 효(孝)에 순(純)한 것이다. 여기는 것을 패덕(悖德)이라 하고, 인(仁)을 해치는 것을 적(賊)이라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못난 사람이요, 형제가 생긴 대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자가 오로지 부모를 닮은 자이다. 조화를 알면 그 일을 잘 계승하고 신묘한 이치를 궁구하면 그 뜻을 잘 계승할 것이다.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부모에게 욕됨이 없는 것이며,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데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중략)<sup>28)</sup>

27) 『孟子』 「公孫丑上」 6,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28) 『退溪先生文集』 卷7, 「筓子」, 「進聖學十圖筓」, 〈第二西銘圖〉, “乾稱父, 坤稱母, 子茲藐焉, 乃混然中處. 故天地之塞吾其體, 天地之帥吾其性. 民吾同胞物吾與也. 大君者 吾父母宗子, 其大臣宗子之家相也. 尊高年所以長其長, 慈孤弱所以幼其幼, 聖其合德賢其秀也. 凡天下疲癯殘疾惇獨鰥寡, 皆吾兄弟之顛連而無告者也.”

『서명』은 본래 북송시대 장횡거의 글로써 본래 ‘어리석음을 고치다’는 뜻으로 정완(訂頑)이라고 이름 붙였었는데, ‘정(訂)’은 ‘그릇되고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고 ‘완(頑)’은 ‘어질지 못하다’는 뜻이다. 즉, ‘어질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와 천지 만물의 이치가 본래 하나인 것처럼 남의 아픔을 내 몸의 아픔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이것을 리일분수(理一分殊)라고 하는데 정이천은 “하나로 통합되었으면서도 만 가지로 다르니 천하가 한 집이고 중국이 한 사람과 같다 하더라도 겸애(兼愛)하는 폐단에 흐르지 않고, 만 가지가 다른데도 하나로 관통하였으니 친근하고 소원(疎遠)한 정(情)이 다르고 귀하고 천한 등급이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하는 사사로움에 국한되지 않으니, 이것이 『서명』의 대강의 뜻”<sup>29)</sup>이라고 말한다. “아버이를 친근하게 여기는 두터운 정을 미루어서 무아(無我)의 공심(公心)을 기르고, 아버이를 섬기는 정성으로 하늘을 섬기는 도를 밝힌 것을 보면, 어디를 가도 이른바 분수가 서 있고 ‘리일(理一)’을 유추하지 않는 것이 없다”<sup>30)</sup>는 것이다. ‘리일분수’의 원리는 자기 자신의 개체성을 해치지 않고서도 전체의 보편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한다.

퇴계는 대소변 수발을 자기 부모에게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예가 없을 수는 없겠다는 생

---

于時保之，子之翼也，樂且不憂，純乎孝者也，違日悖德，害仁日賊，濟惡者，不才，其踐形，惟肖者也，知化則善述其事，窮神則善繼其志，不愧屋漏爲無忝，存心養性爲匪懈。

29) 『退溪先生文集』卷7, 「筓子」, 「進聖學十圖筓」, 〈第二西銘圖〉, “一統而萬殊, 則雖天下一家, 中國一人, 而不流於兼愛之蔽, 萬殊而一貫, 則雖親疎異情, 貴賤異等, 而不桎於爲我之私, 此西銘之大旨也”.

30) 『退溪先生文集』卷7, 「筓子」, “進聖學十圖筓, 第二西銘圖: 觀其推親親之厚, 以大無我之公, 因事親之誠, 以明事天之道, 蓋無適而非所謂分立而推理一也”.

각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무릇 군자는 내 부형에게 효제(孝悌)의 도리를 돈독히 해야 하는 것이니, 내 아버지를 높이어 남의 아버지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내 어른을 공경하여 남의 어른에게까지 미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나이가 배가 되면 아버지로서 섬기고, 열 살이 위이면 형으로 섬기고, 다섯 살이면 견수(肩隨)하는 것이니, 이것을 허례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 아버지를 높이고 내 어른을 공경함으로써 그것으로 미루어 남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그 공경하는 예가 혹 그 사람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sup>31)</sup>라고 하여 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예를 말하였다. 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차등적 사랑이지만 궁극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보편적 명제 속에서 내 어른(부모)을 먼저 공경한 후에 내 어른을 공경하듯이 다른 어른들도 그와 같이 공경해야 한다는 개체성과 보편성을 아우를 수 있다. 보편성을 포섭하기 위해서 개체성을 해치는 전체주의나 개체성만을 강조하여 보편성을 해치는 개인(個人)이기주의(利己主義)와는 다른 것이다. 평화 역시도 최근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는 자기나라 중심의 이기주의나 혹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고 하면서 타국가의 고유성(종교, 정치, 문화 등)을 해치거나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끔 하는 것이다.

『서명』에 나타난 리일분수의 이야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맹자에게서 성선을 논증할 때에 어린

31) 『退溪先生言行錄』卷2, 「類編」, 〈處鄉〉, “先生曰所論事長之禮, 大槩得之, 大抵君子於吾父 兄篤盡孝悌之道, 先吾親以, 及人之親, 敬其長以及人之長 年長以倍則父事之, 十年以長則兄事之, 五年以長則肩隨之, 非假設而疆爲之, 皆自尊吾親敬吾長而推其餘以及之, 但其敬之之禮或隨其人而有差等耳”.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측은한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sup>32)</sup>는 감정의 발현 이야기가 『서명』에서도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도덕감정’이라고 불리우는 이 감정을 통해 선한 본성이 있다고 논증하는 맹자의 입장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기 가족을 우선시하는 개별성과 차등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발짝 더 나아가면 주변의 이웃과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 자기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주변의 이웃과 어려운 사람 역시 사랑하라는 것이 『서명』에서 말하는 리일분수의 핵심인 것이다. 무조건적인 이웃사랑이나 다 같이 평등하자는 양적 평등이나 개인만을 생각하자는 개인이기주의가 아니다. 퇴계 역시도 그러한 질문에 동일한 논리로 답변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퇴계는 ‘동포’라는 말을 풀이하면서 ‘포’라는 것이 태아를 싸고 있다는 뜻<sup>33)</sup>으로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개체는 다르지만 넓게 보면 한 형제임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퇴계는 「서명도」를 마무리하면서도 성학(聖學)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성학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퇴계는 “대개 성학(聖學)은 인(仁)을 구하는 데 있고, 모름지기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야 바야흐로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됨이 진실로 이러하다는 경지를 볼 수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인을 실현하는 공부가 비로소 친절하고 맛이 있어서 망망(茫茫)하여 손댈 수 없는 걱정을 면할 것이요, 또 물(物)을 자기로 아는 병통도 없어져서 심덕(心德)이 온전할 것이다”<sup>34)</sup>라고 하여 자기만을 챙기거나 혹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32) 『孟子』, 「公孫丑上」 6,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非人也, 無是非之心非人也”.

33) 『退溪先生文集』卷7, 「經筵講義」, 〈西銘考證講義〉, “胞, 生兒裹也. 詩小弁註, 獨不處母之胞胎乎, 故謂兄弟爲同胞”.



병통을 경계하였는데, 이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자기만을 우선시하는 경우나 모두가 함께 평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경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퇴계에게 있어 세상은 하늘적 가치를 지닌 개인이 단순히 같이 모여 있는 집합체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 존재는 무작위의 집합 개념이 아닌 내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의 평화는 나와 네가 다른 남남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포라는 인식의 토대 위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논의가 평화의 핵심개념으로 확장되어 나오는 것이다.<sup>35)</sup> 나와 너를 ‘적(敵)’으로 혹은 ‘경쟁상대’로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지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로 이해하고 대하는 것, 그것이 평화의 핵심임을 밝힌 것이다.

#### IV. 나가는 말 ; 퇴계 평화사상의 현대적 의의

평화(平和)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다. 북핵위기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이권다툼과 힘의 논리 앞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떨

34) 『退溪先生文集』卷7, 「筭子」, “進聖學十圖筭, 第二西銘圖: 蓋聖學在於求仁, 須深體此意, 方見得與天地萬物爲一體, 眞實如此處, 爲仁之功, 始親切有味, 免於莽蕩無交涉之患, 又無認物爲己之病, 而心德全矣”.

35)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아는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상대방을 ‘함께 살아가는 동포’로 여기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분쟁이 발발하고 테러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쳐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 평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맨부커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가 한강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승리를 위한 전쟁시나리오는 없다”<sup>36)</sup>는 글을 보면 평화가 얼마나 간절한 문제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sup>37)</sup> 평화는 전쟁으로 얻어질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되지만 오늘날의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의 논의는 항상 전쟁이 마치 최후의 수단처럼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평화는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개인의 수양과 사회 공동체의 믿음과 신뢰를 쌓기 위한 선정(善政)의 시도와 교육(教育)만이 있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자 국가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왔다.

퇴계는 사화(士禍)의 시대 한 가운데를 걸어왔다. 그런 그의 사상 속에서 평화는 중요한 문제였다. 단지 개인의 수양(修養)과 은거(隱居)의 삶만으로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실천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말해왔다.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을 말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함께 살아야 함을 말하였다. 왜구(倭寇)퇴치 이후 화친(和親)요청을 하는 왜구에 대한 조정의 태도를 비판하며 오히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퇴계는 지속적인 왜구침입으로 피폐해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왜구를 퇴치하였지만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화친을 요청할 때에는 있는

36) “While the U.S. Talks of War, South Korea Shudders,” 『뉴욕타임즈』(온라인), 2017년 10월 7일 <<https://www.nytimes.com/2017/10/07/opinion/sunday/south-korea-trump-war.html>>

37) 기고칼럼 내용의 호불호를 떠나 북핵위기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원하는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평화를 원한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백성은 나의 동포요 만물은 나와 함께’라고 여기는 퇴계의 사상 속에는 평화를 위한 전쟁시나리오도 없으며 나와 너의 편 가르기를 통해 불신(不信)의 경계를 세우지도 않았다. 오직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적 가치를 지닌 고귀한 존재임을 알고 그것으로서 모든 평화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남이 나를 죽일까를 염려하여 충기를 소지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얻어맞기 전에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전쟁정신에 기반한 평화의 주장들은 특정한 사람과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평화일 것이며 모두가 원하는 평화는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퇴계의 평화사상은 오늘날 복잡다난한 현대사회 속에서 여전히 유의미하다. 어쩌면 퇴계는 오늘날 평화를 말할 때 선(善)과 악(惡)의 이분법적인 논의나 힘으로써 돈으로써 무력으로써 해결하려는 모든 태도를 배척하고, 하늘이 천지만물을 낳아 기르는 마음처럼 우리 역시도 그 마음을 닮아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평화의 기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한 마음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가족같이 동포와 같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세계임을 그것이 평화임을 퇴계는 오늘날 복잡다난한 세계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라야 전쟁이 아닌 평화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論語』. 서울: 보경문화사, 1984.
- 『孟子』. 서울: 보경문화사, 1984.
- 『朱子語類』. 허탁 역. 『주자어류』. 서울: 청계, 1998.
- 『退溪先生文集』.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牧隱文藁』.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금장태.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금장태. 『성학십도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김병욱. “퇴계 평화개념에 관한 검토.” 『국제정치논총』, 43권 3호 (2003).
- 성해준. “退溪의 對日觀에 涵意된 平和思想.”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1 (2015).
- 성해준. “退溪의 仁愛觀에 담긴 平和思想.” 『퇴계학논집』, 26권 26호 (2015).
- 성해준. “퇴계의 화친유화의 대일관에 보이는 평화.”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2016).
- 이기동. 『이색』.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 이상운. 『퇴계의 생애와 학문』. 서울: 예문서원, 1999.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두산 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doopedia/>>
- “While the U.S. Talks of War, South Korea Shudders.” 『뉴욕타임즈』(온라인), 2014년 11월16일 ;
- <<https://www.nytimes.com/2017/10/07/opinion/sunday/south-korea-trump-war.html>>

## A Study on the Toegye's Peace Thought

Kim, Sung-Sil (University of SungKyunKwan)

### Abstract

This paper is a review of Toegye's idea of peace.

Peace is an agent in the logic of the nuclear crisi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wer of the great powers. Ever since its history, it has tried to realize peace in various aspect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ut the threat of war and armed forces has increased since the Cold War.

Perhaps we need to think about whether the notion of peace is too abstract. If we define peace as simply a state in which war does not take place, we must ask whether the Cold War era was an era of peace. Rather, do not understand the concept of peace as a nation - state concept abstractly. If you narrow down the scope to individual and individual problems, you can see that mutual trust and faith are important. Indifference or individual selfishness toward others is not a state of mutual trust and faith. If you look again, you will not see a peaceful state that does not fight with individuals who do not fight

In this sense, we will examine the concept of peace that Toegye refers to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oegye's idea of peace through the letter for king and Diagram of the Wesern Inscription. Toegye is a philosopher who walked quietly through the age of socialization. Though

his era was as complicated as it is today,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significance is in today's era through the philosophy of Toegye who dreamed of human beings with heavenly values and a community in which such human beings and humans live together.

Key words : Toegye, Peace, Heaven, Coexistence, Cosmopolitanism

김성실(Kim, Sung-Sil)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유교철학을 전공하고 맹자와 공동체로 석사학위를, 퇴계와 감정에 대한 연구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대학교 문화교차연구소 연구원으로 '철학', '문화', '감정' 등을 주제로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다.